

##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의 개념 및 사용자 분석<sup>†</sup> - 네이버 지식-iN과 카페를 중심으로 -

김선민 · 이시우 · 문수정\*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 Analysis of the Mibyeong Concept and User on the internet. - Focusing on Naver Jisik-iN Q&A, Cafe posts -

Sunmin Kim, Siwoo Lee & Sujeong Mun\*

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South Korea

### Abstract

**Objectives** : Although interest in preventive medicine has increased recently, “Mibyeong”, the preventive concept of Korean medicine, is still un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Mibyeong and users used on the Internet.

**Methods** : Naver (www.naver.com), which has the highest ranking in terms of market share, number of visitors, search time share, and community category share, has been selected as a search target and jisik-iN Q&A and posts of cafe about Mibyeong were searched for recently approximately 6 years.

**Results** : 105 cases of Jisik-iN Q&A and 283 cases of cafe posts were searched. Overall, the number of Jisik-iN Q&A and cafe posts’s Mibyeong term usage was the highest in 2013. In the Internet user category, Mibyeong Term was used most commonly in the Jisik-iN Q&A by Korean medicine related medical personnel (29 cases, 28%) and in the cafe other health-related workers (87cases, 31%). In Mibyeong related cafe classification, Information Exchange (220 cases, 77%) was the most frequent and besides 39 cases (14%) used in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concept of Mibyeong was often used as symptom-based rather than diagnostic test or disease (Cafe posts 52%, Jisik-iN Q&A 70%), in particular, topic of Mibyeong related Jisik-iN Q&A was used in the order of pain (31 cases, 16%), cancer (17 cases, 9%), fatigue (11 cases, 6%).

**Conclusions** :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basic research data of general Internet user group and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awareness promotion, publicity and necessity of Mibyeong.

• 접수 : 2017년 3월 25일 • 수정접수 : 2017년 4월 14일 • 채택 : 2017년 4월 18일

\*교신저자 : Sujeong Mun, 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054, South Korea

전화 : +82-42-869-2719, 팩스 : +82-42-868-9388, 전자우편 : azrain@kiom.re.kr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미병자료 통합분석 및 예방관리 시스템 개발사업”(NRF-2014M3A9D703433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ey words : Mibyeong, Internet, Preventive medicine, 亞健康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가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 보고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출산율 저조는 노령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2050년에는 한국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초고령화 사회는 보건의료계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화두 되는 가운데, 고령화와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sup>1,2)</sup>.

이처럼 세계적으로 심화된 인구 고령화의 등장과 산업 발달에 따른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의학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예방의학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예방의학이란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미병(未病)은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의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지 않고, 미병을 치료한다(不治已病 治未病)”라고 언급된 이후 한의학의 중요한 예방의학 개념으로 강조되어 왔다<sup>5)</sup>. 미병은 각 나라 혹은 연구자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치료의학의 개념보다는 예방의학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학 옛 서적들에서 미병은 몸의 철학, 예방과 양생을 강조하는 개념 등 다양한 표현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sup>6)</sup>. 더불어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검사 결과에서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상 이상을 호소하는 미병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sup>7)</sup>, 이들을 치료하고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sup>8,9)</sup>.

서양의학에서도 현대의학으로 설명되기 힘든 신체 증상(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으로의 미

병 개념이 있고, 중국은 질병예방과 질병의 악화방지 및 회복 후 관리까지의 개념을 포괄한 양생보건(養生保健) 의미로써 미병을 정의하며<sup>10)</sup>,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미병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sup>11-14)</sup>. 일본은 서양의학적 미병과 동양의학적 미병의 2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sup>15)</sup>, 일본미병시스템학회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16)</sup>. 일본과 중국에 비해 다소 늦었던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미병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미병 관리법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다학제 미병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7,18)</sup>.

국내 전국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미병 용어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성인의 47%가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피로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들은 미병군에 해당됨에도 의료기관 방문율은 15.9%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sup>8,19)</sup>. 미병에 대한 인식의 현황 조사 및 인식 증진은, 예방의학적 건강관리의 개념 활성화와 적극적인 미병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은 편으로 OECD국가 중 2위(71.3%)를 차지하고 있으며<sup>20)</sup>, 또한 인터넷 사용자 중 84.4%가 인터넷 상에서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p>21)</sup>. 따라서 인터넷의 활용은 개인의 건강생활 및 질병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사료되나, 아직 국내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의 개념에 대한 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 검색 포털 사이트 중 가장 많은 접속자를 지닌 네이버에서 일반인들의 ‘미병’ 용어 사용에 대한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검색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검색 중 지식-iN과 카페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 분석이며, 미병의 개념과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미병 용어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용어를 쓴 사용자들을 분류함과 동시에 미병이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여 일반인들의 미병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검색 전략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네이버에 입력된 통합 검색 질의들 중, 지식-iN과 카페 글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에 대한 사용자의 글을 검색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선정기준은 웹사이트 분석 평가 서비스 기관인 Korean Click (<http://www.koreanclick.com>)과 InternetTrend™([www.internettrend.co.kr](http://www.internettrend.co.kr)) 등의 분석리포트를 참고하였다. 분석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 검색 포털들 중 시장 점유율과 방문자 수, 검색 시간 점유율 조사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1위를 독차지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 NAVER는 검색엔진 점유율 85.39%, 커뮤니티 카테고리 점유율 54.72%, 건강/의학 카테고리 점유율 86.9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네이버에 입력된 질의들이 국내 웹 이용자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다<sup>22)</sup>.

본 연구에서의 검색 범위는 선정된 지식-iN과 카페 글이 작성된 날짜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최근 6년간)까지로 하였고, ‘미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중 중복 글을 먼저 제거한 후, 동음이의어 등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을 먼저 제외하였다. 미병을 언급한 질문과 답변(지식-iN) 및 게시물(카페)만을 수집하였다.

### 2. 분석방법

조사한 데이터를 MICROSOFT사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 작업이 끝난 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자료만을 도출해 낸 뒤 이를 표로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 3. 자료 분석 기준

#### 1) 지식-iN의 질문과 답변

(1) 지식-iN 미병 관련 게시물 연도별 현황 분석 기준 연도별 미병 관련 게시물 현황 조사를 위해서 사용된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최근 6년간)까지로 했으며, 그 기준은 지식-iN 질문 글이 게시된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 (2) 미병 관련 지식-iN 질문과 답변 분류

지식-iN의 미병 관련 주제로는 지식-iN 질문과 답변의 가장 빈번한 주제 5개와 그 외의 경우인 기타로 분류했다. 먼저 미병 관련 주제를 구분할 때 웹상 노출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미병의 주요 증상 현황은 참고하여 정하였다<sup>6)</sup>. 미병 증상으로, 통증, 피로, 소화장애와 정서적 증상인 스트레스와 암으로 분류했고, 위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타에 속하게 했다.

#### (3) 인터넷 사용자 분류

미병 용어의 인터넷 사용자 분류 범주로는 한의학 관련 의료인, 의학 관련 의료인,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로 나누었고, 위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분류는, 미병의 개념을 모르고 질문 혹은 답변한 게시자들은 제외시켰으며, 지식-iN Q&A에서는 미병의 개념을 알고 사용하는 질문자는 소수였고 위의 기준으로 나눈 세 범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기타’에 속했기에 답변자로 한정하여 인터넷 사용자 분류를 진행하였다.

한의학 관련 의료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첫째, 대한한의학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로 인증되었거나, 둘째, 아이디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지식-iN 프로필 격인 ‘마이 지식’을 참조하였다. 마이 지식에 자신이 종사하거나 운영 중인 병원의 홈페이지 및 병원 카페를 함께 나열해 두었다면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

의학 관련 의료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였는데, Hidoc-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로 인증되었거나, 지식-iN 프로필 격인 마이 지식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요가종사자와 기치유사, 보험-건강 컨설턴트 및 자연치유사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아이디를 비공개로 게시하여 마이지식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자신을 일반인으로만 소개하여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위에서 사용자 분류를 구분하기 위해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사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 (4) 미병 개념 분류

지식-iN에서의 미병 개념 분류는, 질문자가 미병 용어에 대해서 아는지, 혹은 답변자가 미병에 대해 이해한 사람만 개념 분류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증상 기반의 미병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증상 기반으로 분류하였고, 미병에 대해 모르는 질문자의 답변에 검사 기반의 미병으로 답변했다면 답변자에 따라 검사 기반으로 분류했다. 또, 질문자나 답변자 중 증상과 검사 기반의 미병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면, 증상&검사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위의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로 정리했다. 즉, 증상 기반, 검사 기반, 그리고 증상과 기반이 함께 쓰인 증상&검사 기반의 세 카테고리 나누었고,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언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증상 기반과 검사 기반 분류 작업을 위한, 증상과 검사의 정의는 네이버 지식백과와 간호학대사전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이 내렸다.

먼저, ‘증상’은 말하는 사람(환자)이 주관적으로 느껴 직접 호소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속성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검사’는 검사 도구를 통한,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거나 혹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때를 일컫고,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 외에 증상 기반이나 검사 기반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두 경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2) 카페의 게시물

#### (1) 카페 미병 관련 게시물 연도별 분석 기준

카페의 연도별 미병 관련 게시물 현황 자료 분석 기준은 게시물이 게시된 때로 설정하였다.

#### (2) 미병 관련 카페 게시물 분류

미병 관련 카페 게시물 분류를 위한 카테고리 분류

는, 카페 특성에 따라 세 카테고리인 정보 교류, 의료 기관 운영, 기타로 나누었다. 정보 교류는 세부적으로 건강 관련·여성·종합·책·한의학 정보로 5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건강 관련 정보에는 특정 질환·운동 및 대체의학·기타로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가장 많이 분포한 정보 교류 항목에는 건강 관련·여성·종합·책·한의학 정보들을 속하게 했고, 의료 기관 운영 항목에서는 한방병의원과 병의원이 연속되게 했다.

기타 정보에는 서로 지식을 나누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카페를 포함시켰다.

#### (3) 인터넷 사용자 분류

인터넷 사용자 분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식-iN과 마찬가지로 한의학 관련 의료인,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 의학 관련 의료인, 위 세 가지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타로 구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지식-iN과 같이 인터넷 사용자 분류는, 미병을 알고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제한하여 분류하였다.

카페에서는 지식-iN과 다르게 글 게시자의 추가적인 정보를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학 관련 의료인,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 의학 관련 의료인의 대부분이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하는 곳에 글을 게시하거나 태그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때에는 적극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대체식 판매자·대체의학 종사자·보험-건강 컨설턴트·명상 및 자연치유사·뷰티 관련 종사자 등이 있었다.

지식-iN에서 앞서 기술했듯, 사용자를 분류할 단서가 없으면 지식-iN과 카페에서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카페에서는 연구자(트라우마/자연과학/유전체/생체전문의학 등)·교수(국문학/산림환경)·스피치 전문가·책 소개자·암(환자) 내력 가족·여성·학생(한의학·의학 관련학과 및 공간디자인) 등도 기타 항목에 포함하였다.

#### (4) 미병 개념 분류

카페에서의 미병 개념 분류 방법 또한 지식-iN에서의 미병 개념 분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 III. 연구결과

#### 1. 지식-iN과 카페의 게시물 검색 및 선별과정

미병에 대해 네이버에서 지식-iN과 카페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지식-iN글 140건, 카페 글 426건 이었다. 중복된 게시물 지식-iN 8건과 카페글 46건을 각각 제거한 후에,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 지식-iN 27건과 카페글 97건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은 지식-iN 105건과 카페글 283건 이었다(Figure 1).

#### 2. 연도별 지식-iN과 카페의 게시물

최근 6년간 연도별 미병 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지식-iN(52건)과 카페(59건) 사용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에도 2010년대 초반에 비해 증가된 사용 건수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매년 미병 관련 카페 게시물도 지식-iN의 게시물보다 높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었다(Figure 2).

#### 3. 미병 용어의 인터넷 사용자

지식-iN의 미병 용어 사용자 분류에서, 미병 용어 사용자가 한의학 관련 의료인이 28%(29건), 기타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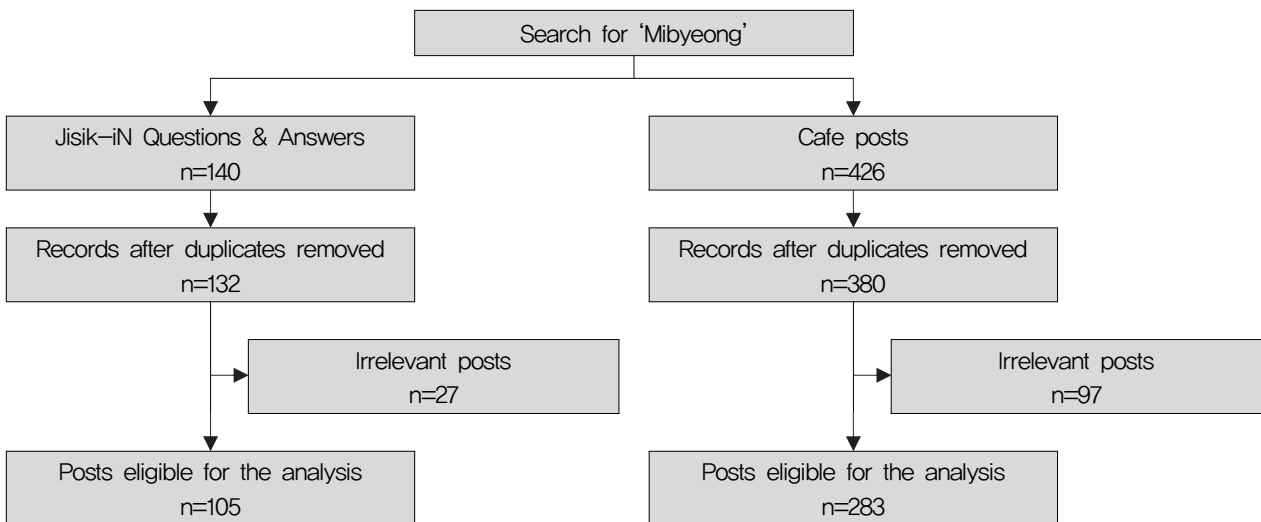


Figure 1. The selection process flow chart of online p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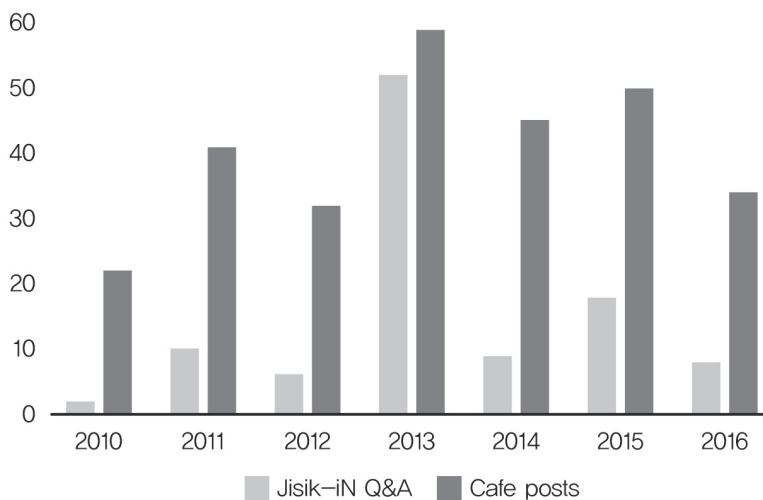


Figure 2. Mibyeong search result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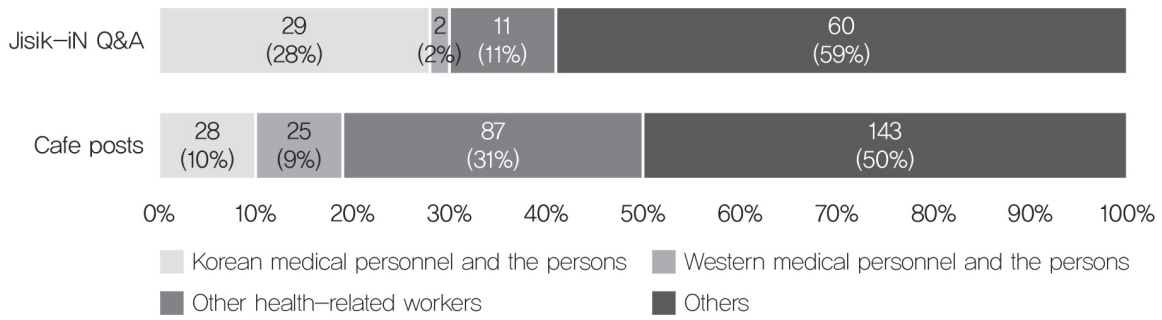


Figure 3. Internet user of the Mibeong term

관련 종사자 11%(11건) 순으로 사용도가 높았다. 더불어 지식-iN 사용자 분류의 답변자 중에는 한의학 관련 의료인이 28%(28건),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 11%(11건)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카페에서는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 31%(87건), 한의학 관련 의료인이 10%(28건), 의학 관련 의료인 9%(25건)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Figure 3).

#### 4. 미병 관련 카페 분류

미병 용어를 사용한 카페글의 카페 성격 분류에서는 정보 교류 카페(220건, 77%)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 교류 카페 분류 안에서는 건강 정보 교류 카페(103건, 36%)와 종합 정보 교류 카페(68건, 24%), 여성을 위한 정보 교류 카페(18건, 6%) 순으로 미병 용어 사용이 많았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 카페에서 사용된 경우도 39건(14%)이 있었다.

건강 관련 카페 12곳 중에서 특정 질환의 암과 관련된 카페의 게시물이 10건, 아토피에 관련된 카페의 게시물 4건 등이 있었다. 운동 및 대체의학 항목에는 요가와 자연치유, 호흡과 명상 및 기치료 등의 대체의학·대체식 등의 대체의학 등을 종속시켰다. 건강 관련 정보를 세부 분류 했음에도, 이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건강 관련 기타 정보에 포함했다.

그 외에 여성 정보는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종합 정보는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의 온라인상의 장소였고, 책 정보와 한의학 정보는 글자 그대로 책 소개 및 서평을 위한 카페와 한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였다.

의료기관 운영 카테고리에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관련 정보를 주면서 대체로 병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주는 곳이었다. 의료기관 운영의 세부 항목으로 한방병의원과 병의원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한방병의원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있었고, 병의원에는 내과와

Table 1. Mibeong related Cafe Classification

Cafe Classification		Detailed Classification	Posts (Case)	The Number of Cafes
Exchange of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Specific Diseases	18 ( 6%)	12
		Exercise and Alternative Medicine	65 (23%)	39
		Other Health related Information	20 ( 7%)	18
	Comprehensive Information	-	68 (24%)	51
	Women's Information	-	18 ( 6%)	17
	Book Information	-	16 ( 6%)	7
	Korean Medicine Information	-	15 ( 5%)	7
Operation of Institutions	Western Medical Institutions	-	21 ( 8%)	4
	Korean Medical Institutions	-	18 ( 6%)	8
Others	Other Information	-	24 ( 9%)	20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및 3차병원 갑상선암센터가 있었다.

기타 정보 카테고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부 항목으로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집단이다. 그리고 <Table 1>의 가장 우측 상단의 카페수 항목은 URL을 수집하여 관련 게시물이 게재된 카페수이다(Table 1).

### 5.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미병 개념

증상 기반의 미병은 지식-iN에서 73건(70%), 카페글에서 148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기반의 미병은 지식-iN에서 1건(1%), 카페글에서 12건(4%)으로 활용되었다. 증상 기반과 검사 기반의 미병 개념이 모두 쓰인 것은, 지식-iN에서 20건(19%), 카페글에서 23건(8%)으로 증상 기반으로의 쓰임보다는 확연히 사용빈도가 낮았다(Figure 4).

### 6. 미병 관련 지식-iN 질문과 답변의 주제

미병 관련 지식-iN 질문 총 30개 중에서 통증, 암, 피로, 소화장애 등과 관련하여 질문되고 있었다. 답변자의 글 190개 중에서는 통증, 암, 피로, 소화장애, 스

트레스와 관련해서 미병을 설명하고 있었다.

기타를 제외하고, 미병 관련 지식-iN 질문과 답변 게시물에서의 사용 활용도가 동등하였다(Table 2).

## IV. 고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약 5,000여 개의 건강 정보 웹사이트들이 운영됨으로써 대중들의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욕구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2002년 10월 7일 시작한 지식-iN 서비스 중, 2008년 9월부터 운영하는 지식-iN 건강/의료상담 서비스가 온라인 의료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sup>23)</sup>. 이런 시대 흐름에 편승하여, 네이버 지식-iN을 매개체로 국민 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논문<sup>24)</sup>이 발행되기도 하였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의 시초는 2003년 ‘카페 In’이었고, 2007년 카페 관리 운영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편을 계기로 2009년부터 네이버 카페는 단독 선두를 꾸준히 지켜왔다<sup>25,26)</sup>.

이번 연구결과 아직까지는 온라인상에서 미병의 사용례가 많지 않았지만, 2010년도에 비해 현재 사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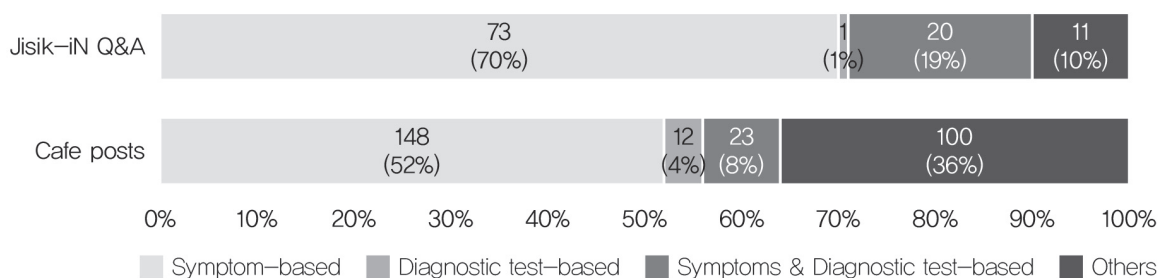


Figure 4. Mibyeong concept used on the Internet

Table 2. Topic of Mibyeong Jisik-iN Questions and Answers

Jisik-iN Topic	Questions (Case)	Answers (Case)
Pain	8 (27%)	31 (16%)
Fatigue	3 (10%)	11 (6%)
Indigestion	2 (7%)	10 (5%)
Stress	1 (3%)	2 (1%)
Cancer	3 (10%)	17 (9%)
Other Symptoms	-	26 (14%)
Other Diseases / Tests	-	17 (9%)
Others	13 (43%)	76 (40%)

도가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병'에 대한 관심도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도별 미병 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지식-iN과 카페에서 미병 용어 사용 건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2012년 10월 한의신문 및 YTN과 대전, 충남 등의 지방 방송에서 '한국 미병(未病) 연구 본격화' 소식을 알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때에 그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중들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미병 용어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지식-iN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미병 증상 현황에 대해, 선행 미병 연구에서 정의된 7가지 미병 증상<sup>27)</sup>이 대부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iN에서 통증, 피로, 소화, 수면 장애 순으로 미병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미병 증상으로 많이 언급된 이유로 무엇보다 흔한 증상이며, 여러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다양한 질환들과의 관련성이 시사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미병 증상 외에도 질환 중에서는 암이 있었는데, 암이 빈번하게 언급된 까닭은 현재까지 발병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의학적인 미병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서적 증상인 우울, 분노,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 등은 나타났다. 지식-iN에서 질문과 답변의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과 답변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통증, 피로, 암 등이 많이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식-iN 답변에서는 증상 외 검사, 질환 등도 언급하며 지식-iN 질문에서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미병에 접근하고 있었다(Appendix).

또한 전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운동 및 대체의학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분야에서 미병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과 관련된 게시물에서는 대체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운동과 음식 및 재료의 효능을 설명할 때 미병 용어가 매개체로써 사용되었고, 이는 미병 용어가 한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보건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병의원 중 특히 가정의학과에서도 미병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병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0.2%(2013년도)에서 67%(2015년도)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

여준 2015년 조사에서처럼<sup>27)</sup>, 한의학 분야의 전문 의료 용어로 여겨지는 미병이 차츰 개방적 용어로 변모하는 과도기라고 판단된다.

미병 용어를 쓰는 인터넷 사용자 분류 측면을 보면, 지식-iN에서는 한의학 관련 의료인이 28%(29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카페에서 가장 많은 사용률을 보인 것은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가 31%(87건)이었지만, 한방 및 의학 관련 의료인도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식-iN과 카페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식-iN은 대부분 증상위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질문하면 그 글에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로 인증된 자들이 미병 상태를 언급하며 상담을 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는 지식-iN과 같이 사용자들 간에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보 및 견해를 나누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와 별개로 특정 의견 혹은 개인의 관심사나 홍보를 위한 글을 게시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사용자 분류를 카페 게시글과 댓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카페 게시글에서 확연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카페의 특성으로 인해 지식-iN과 약간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된다(Appendix).

한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미병 개념에 대한 델파이 연구에 따르면, 미병의 개념은 크게 증상 기반(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이상 증상)과 검사 기반(검사 상 경계치)으로 나눌 수 있다.<sup>7)</sup> 미병 개념을 증상 및 검사 기반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증상 기반의 미병 개념이 지식-iN과 카페 모두 절반 이상 활용되었으며, 특히 지식-iN은 증상 기반의 미병 개념으로의 쓰임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대부분 몸의 이상을 느낄 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자신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에서 먼저 질의응답 게시물을 올리면서 의료·건강 정보를 찾는 사이버콘드리아스(Cyberchondriacs)의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sup>28)</sup>.

현재 한의학과 관련된 국내 과학 기술 포털은 KMCRC, BRIC, KOSEN, OASIS 등이 존재하며, 국내 포털들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요 콘텐츠는 연구자들을 위한 것이다. 즉, 위에 언급한 네 곳의 포털들은 전문성과 신뢰성은 보장되지만, 가지각색의 사용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렇듯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한 의 정보는 대부분 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이들은 한의



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학 기술 전문 포털들이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일반 포털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 지식 포털을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의 개념 및 사용자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병 용어는 현재에도 한의 의료계뿐만 아니라 양의 및 기타 건강보건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실 미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 간의 학술적인 교류는 현재 많지 않다. 따라서 한의계 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증진을 통해 미병 용어 사용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병 용어가 객관적 검사 지표나 이를 통해 진단되는 특정 질환과 관련되기 보다는 주로 주관적으로 자각되는 증상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었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미병의 주관적인 특징과 객관적 지표, 질환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로써 미병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활발한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미병에 대한 개념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하나의 상병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미병이 질환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예방의학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의 개념과 사용자를 분석하는 데에 네이버의 지식-iN과 카페로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지식-iN과 카페는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올리거나 정보 공유의 목적을 위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다. 추후 연구에서 네이버 블로그 및 타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미병 용어가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특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미병 용어 사용 특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2015년 조사결과, 만 3세 이상이며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인터넷 비이용자' 14.9% 중, 12.3%가 인터넷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 연구 범위는 '인터넷 상'으로 한정된 점으로 인해, 70세 이상의 82.1% 인터넷 비이용자를 포괄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sup>30)</sup>. 그러나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국가별 통계 자료를 취합으로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순위 발표에서<sup>31)</sup>,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인구 100명당 107.8명으로 여전히 100%가 넘는 수치를 유지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OECD국가 중 2위(71.3%)이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83%로 인터넷 비이용자 미포함으로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된다<sup>20,32)</sup>.

셋째, 본 연구에 포함된 글 중에는 단순한 질문·답변 혹은 의견교환이 아니라, 홍보를 목적으로 쓰인 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글의 내용이나 사용자 정보가 특정 건강 관련 제품이나 병원과 관련이 있음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었으나 확실히 홍보성 글과 아닌 글을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미병 용어는 운동, 건강식품 및 식이보충제 관련 산업 등의 건강보건분야와 한의원,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분야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홍보성 글의 존재는 미병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미병 용어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병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사용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분석 결과가 향후 미병 연구 및 관련 산업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사용되길 기대해 본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의 지식-iN과 카페를 사용하여 최근 6년간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미병 용어의 개념 및 사용자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병 용어의 사용자 분류와 관련해서는, 지식-iN에서는 한의학 관련 의료인이 29건(28%), 카페에서는

- 기타 건강 관련 종사자가 87건(31%)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2. 미병 용어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카페 분류는 정보 교류 카페(220건, 77%)였고, 그 안에서 건강 정보 교류 카페(103건, 36%)와 종합 정보 교류 카페(68건, 24%), 여성을 위한 정보 교류 카페(18건, 6%) 순이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 운영 카페(39건, 14%)에서 미병 용어 쓰임이 많았다.
  3. 미병 개념을 증상 기반과 검사 기반으로 구분하였을 때, 증상 기반의 미병 개념이 지식-iN 73건(70%), 카페 148건(52%)으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4. 2010년 이후로 미병 용어 사용례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 지식-iN Q&A 글 주제를 분석한 결과 증상 중에서는 통증과 피로, 질환 중에서는 암과 관련하여 미병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병 용어의 개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미병 연구 및 관련 산업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미병자료 통합분석 및 예방관리 시스템 개발사업”(NRF-2014M3A9D703433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참고문헌

1. 서건석, 김지영, 신민선. 2015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81):1-125.
2.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WHO; 2014.
3. 맹광호. 우리나라 예방의학 교육의 미래: 희망과 도전. 예방의학회지. 2006;39(1):7-12.
4. 진희정, 백영화, 이영섭, 이재철, 김명, 김상혁. 미병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4):546-550.
5. 민진하,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치미병 사상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1):257-277.

6. 이상재, 이송실, 김도훈. ‘未病’연구의 경향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0;23(5):23-34.
7. Lee JC, Kim SH, Lee Y, Song S, Kim Y, Lee S. The concept of Mibyeong (sub-health) in Korea: A Delphi study. EUJIM. 2013;5(6):514-518.
8. 진희정, 이영섭, 유하나, 이시우. 미병 특허 동향 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5;19(3):21-28.
9. 이상현. 삶의 질 향상 및 전통의학 계승발전을 위한 한의학 기술 및 정책 동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10:1-34.
10. 이재철, 김동수, 장은수. 현지 기술 조사활동을 통한 중국의 미병 정책 및 의료서비스 최신 동향 보고.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1):137-147.
11.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about/en/>, April 7, 1998.
12. Jin XL. Chinese medicine “treating disease” health project management research. dissertation. 2013.
13. 于晓彦, 汤少梁, 王高玲. 中医药“治未病”健康管理服务发展现状及推广对策研究. 江苏中医药. 2014;46(11):70-73.
14. Yang LK. Clinical application of “Preventive Treatment of Disease” theory of TCM for perinatal care. CJCM. 2014;6(3):131-133.
15. 이재철, 김상혁, 이영섭, 장은수, 이시우. 한의학의 미병 개념 및 변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2;16(2):31-39.
16. 이은영, 이영섭, 박기현, 유종향, 이시우. 미병에 대한 한국 일반인의 인식과 미병률 현황 : 전국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5;19(3):1-10.
17. 여민경, 박기현, 배광호, 장은수, 이영섭. 건강 증진을 위한 평소 증상 기반의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 신뢰도를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6;30(2):116-123.
18. 박수정, 배영춘, 최나래, 류승엽, 권영미, 주종천. 만성 피로를 치료하기 위한 체질 약차 임상 연구. 대한약침학회. 2014;17(4):55-60.
19. 미병의 유병률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주)한국갤럽 조사연구소-KIOM. 2013.
20. Statista The Statistics Portal. <https://www.statista.com/chart/>, August 5, 2016.

21. 류시원, 하유정.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4:97:71-87.
22. 박소연. 네이버와 구글의 모바일 통합 검색 콘텐츠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1:42(4):263-280.
23. 유현재, 조은선, 안선희. 네이버(www.naver.com) 지식iN 건강/의료상담 서비스에 있어서 질문자와 답변 의사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3-7.
24. 김성진. 네이버 지식iN을 매개로 국민건강 챙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6(4). 2008:6(4):147-150.
25. 네이버연혁. <http://www.navercorp.com/ko/company/companyHistory.nhn>
26.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
27. 이은영, 박기현, 유종향, 이시우. 일반인의 미병 인식 변화 양상과 관리방안 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6:20(1):1-10.
28. 김윤경, 임병묵.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본 한의학 인터넷 건강 상담의 현황.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1):51-63.
29. 남보령, 김상현, 이명구, 김상균. 한의 건강 지식의 공유를 위한 포털의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16(6):614-626.
30. 김주영, 조찬형, 장세정, 윤은정.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1-415.
31.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sti/broadband/>, August 2, 2016.
32. 2015년 모바일인터넷이용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Appendix]

지식-iN 질문과 답변 및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에 따른 미병 용어의 사용자 및 개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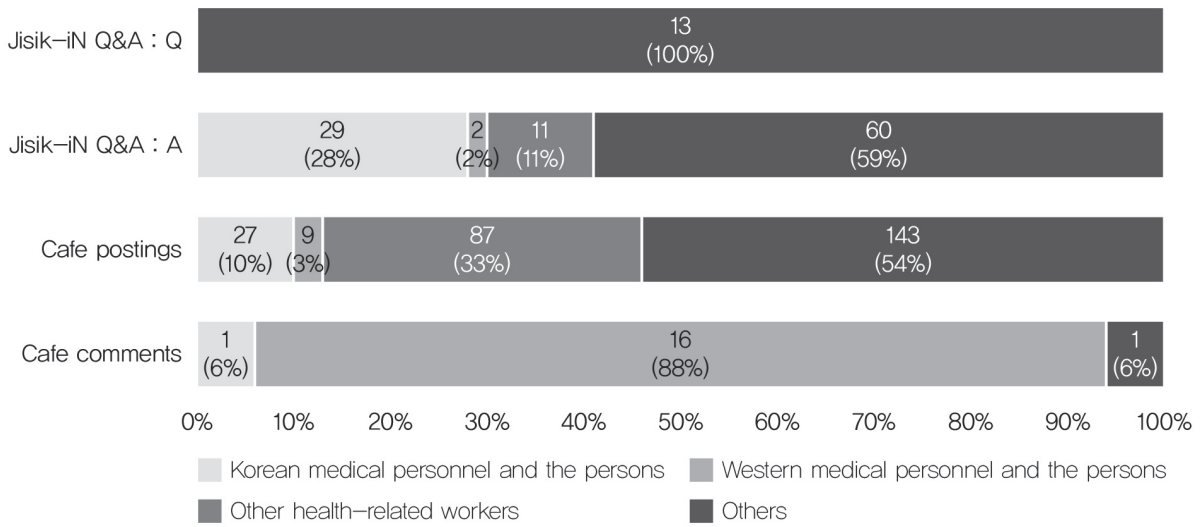


Figure 5. Detailed internet user of the Mibeong 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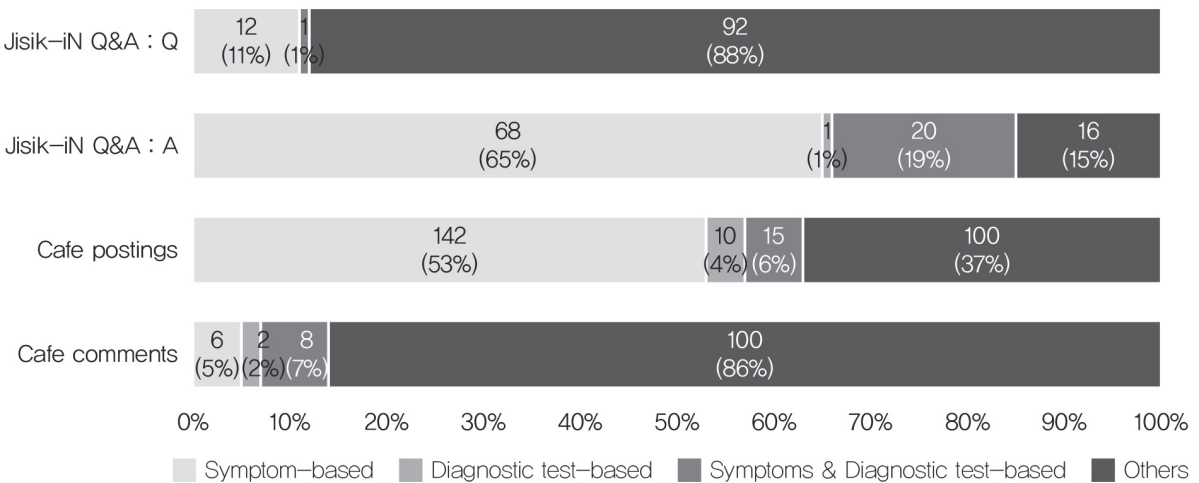


Figure 6. Detailed Mibeong concept used on the Internet